

아시아,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물리학과 엄경식

세계의 중심이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고 있다. 과거 오랜 기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은 아시아였다. 경제규모와 생산력, 과학기술 모두 동양이 서양을 앞섰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동양은 서양에 역전 당했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의 국가들은 재역전을 노리고 있다. 아시아가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평화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 제도적 장벽과 내면적인 장벽을 넘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와 과학 모두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하면서 문과와 이과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고 과학에 더욱 흥미가 있던 나는 이과를 선택하게 되었지만 사회와 역사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대학에 와서는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었지만 인문사회계열 학문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끊이지 않았고 그것을 계기로 국제통상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국제통상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역과 통상과 관련된 주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아시아 관련 강의도 있어서 좋았다. 동아시아 입문과, 동남아시아 입문 등의 강의는 기존의 서구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아시아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것의 정점을 찍는 강의는 이번에 수강하게 된 아시아공동체론이었다.

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와 미국의 패권 시대를 지나 아시아의 부상이 시작 되었다.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부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 동남아시아의 많은 신흥국가들의 부상은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 외환 및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동아시아는 지구상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큰 타격을 입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 부족 사태 등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IMF 등 국제 금융협정 및 국제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시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여 스스로 위기에 대응하자는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합의하여 경제위기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아시아 국가들이 다자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 아시아는 종교, 문화, 언어, 인종이 다양하며 서로 다른 정치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문화적, 인종적 공통점이 적고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도 부재하다. 또한 아시아는 다양한 갈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남한과 북한, 중국과 대만 같은 분단국의 갈등은 탈냉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문제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고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분쟁,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 영토분쟁 역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아세안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자협력체는 아세안이 그 중심에 있다. ASEAN+3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세안이 핵심이고 2005년 창설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도 아세안 국가에서만 개최되고 새로운 회원국도 아세안의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등 아세안이 그 중심에 있다. 동아시아의 유일한 다자안보대화체제인 ARF 역시 2004년에 아세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세안의 도움 없이는 다자적 제도를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과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역내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중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부상하였고 2010년에는 중국의 GDP가 일본의 GDP를 추월하였다. 이에 따라 역내에서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도 심해지고 있다. 국제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이미 중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고 이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지만 일본의 경험과 그동안 발휘해온 지도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한국이 중심이 되어 중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도록 유도한다면 한중일 3국이 아세안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역내협력을 주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아시아공동체가 세계공동체를 이룩하는데 중심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

아시아공동체론은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다만 일본과 관련된 수업이 많았고 아시아의 다른 개별국가들에 대한 내용은 적었는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하도록 해야겠다. 또한 아시아공동체론을 통해 지역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 유럽이나 미국은 교과서에도 많이 등장하고 뉴스나 신문에도 자주 보도되어 익숙하지만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 지역의 역사가 어떠한지 정치나 경제가 어떠한지 잘 모른다. 앞으로는 다양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출간한 2018세계경제대전망이라는 책을 사게 되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많지만 세계 각국의 정치와 경제를 비롯하여 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하기에 좋은 책이 될 것이다.

아시아공동체론 덕분에 한 학기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매 강의시간마다 최고의 교수님들이 열정적인 강의를 하였고 학생들은 성실한 수업태도와 좋은 질문으로 강의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후배들이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